

디자인 씽킹의 시대

클라우드 슈밥은 기술 발전에 따른 세상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멋지게 표현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기업인 우버는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없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디어인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소매업체인 알리바바는 물품 목록이 없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숙박 제공업체인 에어비앤비는 소유한 부동산이 없다.”¹⁾

세계미래보고서 2030-2050²⁾에 따르면, 핵융합, 가상 망막 디스플레이로 가상현실 시청, 1,220km의 속도로 달리는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신체 장기 3D프린터, 절단된 사지를 재생,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기술 등이 가능한 시대가 될 것이라 한다.

기술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인가 등의 근본적인 성찰을 이끌어내고 있다. 성장과 발전의 어두운 그늘인 인간성 상실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회 문제 등에 대해 새로운 대안의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대안으로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이 주목받고 있다. 더하여 디자인 씽킹의 시대라 칭한다.³⁾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대한 요구,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상에 익숙하지 않은 인간의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내기 위해 디자인 씽킹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피플인사이트⁴⁾에서는 이제는 디자인 씽킹 시대라는 글을 통하여, 사용자 경험, 특히 정서적 측면에 초점 맞추기(Focus on user's experience, especially their emotional), 프로토타입을 활용해 가능한 해결책 모색하기(Use prototypes to explore potential

1) Schwab, K. (2016).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송경진, 역). 서울: 새로운현재. (원서출판 2016).

2) 박영숙, Glenn, J., Millennium, P., & 유엔미래포럼(2017). 세계미래보고서 2030-2050. 파주: 교보문고.

3) Kolko, J. (2015). Design thinking comes of age. Harvard Business Review, 93(9), 66-71.

4)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pninsight&logNo=221576950829>

solutions), 그리고 실패를 관대하게 바라보기(Tolerate failure) 등을 그 배경으로 제시하였다.

글로벌 기업 구글(Google), 애플(Apple), 에어비앤비(Airbnb) 등은 한발 앞서 디자인 씽킹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삼성, LG 등 대기업에서 디자인 씽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디자인 씽킹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발간하는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2019년 3~4월호⁵⁾에 디자인 사고를 주도하는 올바른 길(The Right Way to Lead design thinking)이라는 주제로 특집기사가 실렸다. 디자인 씽킹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야 할 리더들을 위한 조언을 담고 있다.

한국능률협회 리더스 포럼 행사에 1,100여 명이 참여해 별도의 강연장을 마련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고 한다. 그 세미나의 주제가 바로 ‘디자인 씽킹! 성공을 디자인하는 창의적 사고방식!’이었다. 더구나 시작 시각이 오전 6시 40분이었다고 하니 그 열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IDEO라는 기업에서 태동하였다고 알려진 디자인 씽킹은 기업을 넘어, 공공기관과 교육기관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SAP 코리아에서 실시한 디자인 씽킹 연수에 경기도청 고위공무원들이 참여하였고,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평가받는 미네르바 스쿨의 대학생들이 한국에서 디자인 씽킹 교육을 받았다는 점도 놀랍다. 현재도 당신의 창조적 자신감과 마인드 셋을 증진시키기 위한 자격 과정으로 디자인 씽킹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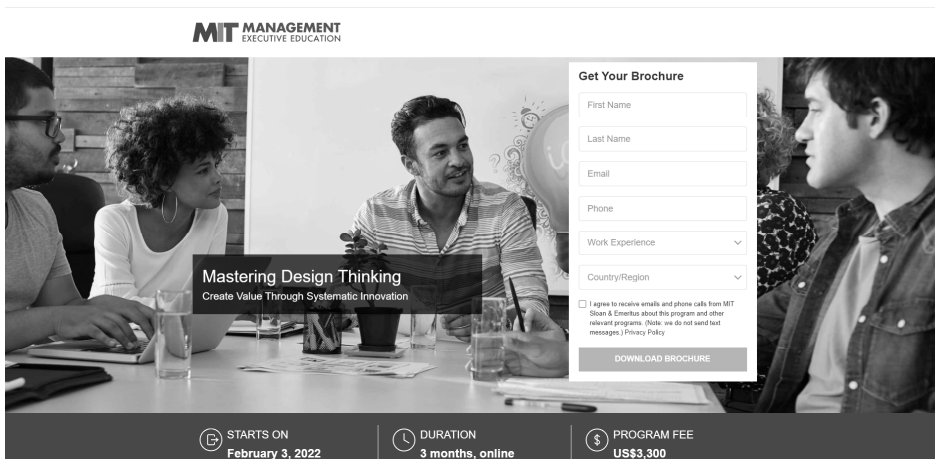
5) Bason, C., & Austin, R. D. (2019). The Right Way to Lead Design Thinking. *Harvard Business Review*, 97(2), 82+.

6) <https://www.ideou.com>



2022년 2월에 오픈하는 MIT 경영자 교육 프로그램(일주일 6~8시간, 3개월 온라인 과정)기에서는 왜 디자인 씽킹을 공부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디자인 씽킹은 충족되지 않은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문제 해결의 강력한 프로세스이다. 그 통찰에서 개념 개발, 응용 창의성, 프로토타이핑 및 실험을 포함하는 혁신 프로세스가 나타난다. 디자인 씽킹 접근 방식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면 혁신의 성공률이 크게 향상된다.



7) <https://executive-ed.mit.edu>

14 교육자를 위한 디자인 씽킹 : 교육혁신을 디자인하다
Design Thinking for Educators

한편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도 창의성, 문제해결, 디자인 씽킹(Creativity, Problem Solving and Design Thinking)의 온라인 과정⁸⁾을 2022년 2월 24일에 오픈하여 6주간(일주일 6~8시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디어 창출과 개발의 구조화된 접근으로 창의적 스킬과 창의적 자신감을 계발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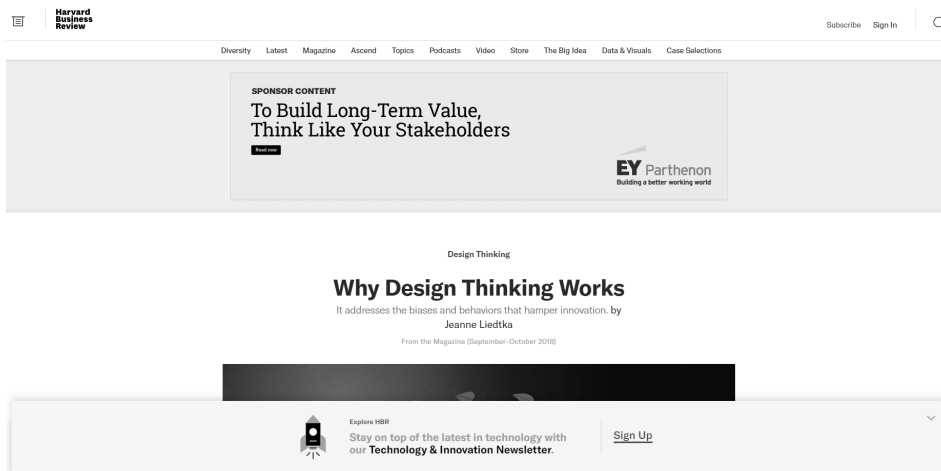
The screenshot shows the course page for 'Creativity, Problem Solving and Design Thinking' at the University of Cambridge. The page includes a header with the university logo and navigation links (About, FAQs, Policies, Contact us). A banner at the top provides January payment deadlines.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the course title and a brief description: 'Boost your creative skills and creative confidence with a structured approach to idea generation, exploration and development.' Below this, a table lists course details: Duration (6 weeks), Commitment (8 hours per week), Price (US\$2,480), and Study mode (Tutor guided). To the right, it shows the start date (24 January 2022), finish date (07 March 2022), enrolment deadline (17 January 2022), and a 'Book a place' button with the price US\$2,480. A 'Course brochure' download link is also pres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Duration: 6 weeks Price: US\$2,4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mmitment: 8 hours per week Study mode: Tutor guid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art: 24 January 2022 Finish: 07 March 2022 Enrol by: 17 January 2022 	<p>Book a place US\$2,480</p> <p>Course brochure</p>
---	--	--	---

하버드 리뷰 최신판에서 왜 디자인 씽킹을 학습하는가(Why Design Thinking Works)라는 Jeanne Liedtka의 기고문⁹⁾에도 혁신의 도전, 최상의 문제 솔루션, 낮은 위험과 비용, 디자인 구조의 탄탄함, 고객의 발견, 몰입과 집중, 감각적 실천(sense making), 아이디어 탐색, 테스트 경험 등을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다.

8) <https://advanceonline.cam.ac.uk/courses>

9) <https://hbr.org/2018/09/why-design-thinking-works>



한편 IDEO에서는 교육자를 위한 디자인 씽킹이라는 툴킷¹⁰⁾을 개발하고 교육적인 혁신의 전략과 실천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근래 들어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씽킹과 교육, 교실,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그 연구와 출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0) <https://www.ideo.com/post/design-thinking-for-educators>

